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3부 · 적극적 표지 1: 성령의 내주 (3부 머리말 포함)

『신앙감정론』 제3부 머리말 및 적극적 표지 1(성령의 내주), 인쇄 283~345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3부의 표지들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부터 밝힙니다. 이 표지들로 남의 구원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빠진 성도에게 바로 확신을 줄 수도 없습니다. 굳어진 위선자를 깨우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적극적 표지를 세웁니다. 참된 감정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적인' 작용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사람 안에 머무르시며 자기 거룩한 본성을 나누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자연인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것과도 '정도'가 아니라 '종류'가 다르고, 마음에 새 감각이 생깁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눈 감고 본 환상, 갑자기 떠오른 성경 구절, 숨은 사실을 직접 알려 주는 계시는 그 자체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인도 겪고 사탄도 흉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로마서 8장 16절의 '성령의 증거'가 속삭이는 음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자녀의 사랑입니다.

🪪 표지 카드

표지 1(적극): 참으로 영적이고 은혜로운 감정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적인 영향이 마음에 작용할 때 생겨난다.

이 표지가 증거인 이유는 그 감정의 출처가 성령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 머무르시며 자기 거룩한 본성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감정은 사람의 본성을 키우거나 짜맞추어서는 만들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것입니다. 사탄도

'자연인도 가질 수 있는 것'에 놓여 있다면, 그 감정은 아무리 뜨거워도 이 표지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 절별 정리

📜 1. 머리말 ①: 이 표지들은 남을 판정하는 도구가 아니다

에드워즈는 표지를 제시하기 전에 선을 긋습니다. 그는 누가 참된 신앙고백자이고 누가 위선자인지 가려낼 표지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고백자는 신앙을 입으로 고백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표지를 주겠다고 하면, 그가 이 책 내내 비판해 온 교만을 스스로 범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가 거짓 교사와 위선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만큼의 분별 원리는 주셨습니다. 목회자가 영혼을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도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를 완전히 가르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 특권으로 남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런 확실한 표지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끌어낸 어떤 표지에도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것 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1. 표지는 이웃의 구원을 판정하는 도구가 아니다
2. 남을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다
3. 분별 원리는 자기 보호를 위해 주어졌다
4.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 **마태복음 25:32**
>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은 마지막 날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배경
>
>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 2. 머리말 ②: 약하고 육신에 빠진 성도는 표지만으로 확신을 얻지 못한다

은혜가 아주 약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육신적인 삶에 빠진 사람은 표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확신을 얻지 못합니다. 에드워즈는 오히려 그들이 모르는 편이 낫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표지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표지를 쓰는 사람에게 두 가지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대상의 결함입니다. 은혜가 너무 작고 부패에 섞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갓 생긴 배아는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갓 깬 비둘기와 까마귀도 비슷해 보입니다. 짙은 연기나 구름 속에서는 붙박이별과 유성을 가리기 힘듭니다. 둘째는 시력의 결함입니다. 죄는 색을 잘못 보게 하는 눈병과 같고, 모든 음식을 쓰게 느끼게 하는 입맛의 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과거 경험을 곱씹거나 설교와 책에서 표지를 찾는 것은 어둠 속에서 사물 구별법을 배우는 것처럼 헛수고입니다. 먼저 삶 속의 '아간'을 없애야 합니다. 자기 성찰은 중요한 의무지만 확신의 주된 수단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확신은 성찰보다 행함으로, 곧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데서 얻어집니다.

1. 표지가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결함이 있다
2. 은혜가 작고 부패에 가려 잘 안 보인다
3. 죄는 영적 시력과 입맛을 망가뜨린다
4. 먼저 삶 속의 '아간'을 없애야 한다
5. 확신은 성찰보다 행함으로 얻는다

> **고린도전서 9:26**
> 바울은 묵상보다 '방향 있는 달음질'로 상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
>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 **빌립보서 3:13~14**
> 뒤엣것을 잊고 푯대를 향해 좇아가는 것이 확신의 길
>
>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에 덕을 더하는 열심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

5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

베드로후서 1:9

이것이 없으면 눈이 어두워져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는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호수아 7:11~13

바쳐야 할 물건(아간의 죄)을 없애기 전에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11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확신은 자기 성찰보다는 행위로 얻어야만 한다."

📜 3. 머리말 ③: 굳어진 위선자에게는 효과가 적어도, 표지는 여전히 유익하다

거짓 깨달음과 감정에 속아 자기 체험을 자랑하는 위선자에게는 원리를 제시해도 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위선자는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기 의에 눈이 멀었습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자기를 높이는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선의 증거를 아무리 분명히 보여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드워즈는 어떤 위선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보다는 덜하지만 거의 회개할 수 없는 상태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도 표지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위선자가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깨우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 성도가 자기 안에 섞여 있는 참 감정과 거짓 감정을 가려 불에 단련된 금처럼 순수해지는 데 쓰입니다.

1. 자기 확신에 찬 위선자는 깨우치기 어렵다
2. 겸손한 척하지만 자기 높임을 사랑한다
3.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4. 성도 안의 섞인 감정을 가려 준다

> **베드로전서 1:7**
> '불로 단련된 금'처럼 믿음이 순수해진다는 비유의 배경
>
>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 **마태복음 12:31**
> '사함받지 못할 죄'와 비교해 위선자의 위태로운 상태를 말하는 배경
>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 4. '영적'이라는 말의 뜻: 성령과 관계된 것

신약은 참 성도를 '영적인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자연인)과 정반대 자리에 놓입니다. 자연인은 본성 그대로 있는 사람, 곧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영적'은 몸과 대비되는 '정신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만처럼 '육체에 속한' 것도 영혼 안에 있고, 세상 권력자의 지혜도 비물질적인 것을 다루지만 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Spirit)이라는 명사에서 나왔고, 성령께 속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모두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발람, 사울, 은사만 받은 자들처럼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만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영적이라 부르는 기준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덕, 곧 온유 같은 열매입니다.

1. '영적'은 '정신적'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이다
2. 영적인 사람의 반대는 육에 속한 자연인이다
3. 은사만 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4. 기준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덕이다

> **고린도전서 2:14~15**
>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정반대로 놓는 기준 본문
>
>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 **유다서 1:19**
>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는 정의
>
>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 **로마서 8:6, 9**
> 영의 생각은 성령이 마음에 거하시는 것과 같다
>
> 로마서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니라

고린도전서 2:13

'신령한 일'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야고보서 3:15, 17

위로부터 난 지혜와 '정욕적(육에 속한)' 지혜의 대비

야고보서 3: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서 3: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6:1

'신령한 너희'는 온유라는 성령의 덕을 가진 사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6:4~6

성령의 영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민수기 24:2

성령이 임했어도 영적이지 않았던 발람

>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 5. 두 가지 차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 본성의 전달, 그래서 '초자연적'

성도와 자연인의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은 성도 안에 성전처럼 영구히 머무르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은 성도의 영혼 기능과 결합해 새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것은 생수를 마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안에서 샘이 솟는 것과 같고, 포도나무 진액이 가지마다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인에게도 빛은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 물체가 빛을 받아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자연인 안에는 성령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둘째, 성령은 성도 안에서 자기 본성인 거룩함을 나누어 주십니다. 불의 본성이 열이고 거룩한 관유의 본성이 향기이듯, 거룩함은 성령의 본성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광채는 정도로는 태양과 비교할 수 없지만 성질로는 같습니다. 성도의 은혜도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은 성질입니다.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처럼 자기 본성을 나누지 않고도 일하실 수 있지만, 자연인에게는 결코 자기 본성을 주지 않으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일부 이단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한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나 마귀가 흉내 낼 수 없는 하나님 고유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신적'이고 '초자연적'이라고 합니다.

1. 성령은 성도 안에 영구히 머무르신다
2. 성령은 자기 거룩한 본성을 나누어 주신다
3. 은혜는 정도로는 미약해도 성질로는 같다
4. 신성 참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
5. 자연인에게 이것은 질적으로 없다

> **고린도전서 3:16**
>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16~17

성령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갈라디아서 2:20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서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복음 4:14; 7:38~39

안에서 솟는 생수는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38-39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3:6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같은 본성의 출생)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3:17~19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에 참여하는 것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8:9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 6. 새 감각: 기능이 아니라 '원리'가 새로 생긴다

성령의 구원 사역은 마음에 전혀 새로운 지각을 만듭니다. 이것을 새 감각 또는 영적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있던 감각을 키우거나 조합해서는 만들 수 없고, 철학자들이 '새로운 단순 관념'이라 부를 만한 것입니다. 미각이 다른 감각과 전혀 다르듯이, 꿀을 맛보는 것은 꿀을 바라보며 갖는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생을 눈을 뜨는 일, 귀가 열리는 일, 죽은 자의 부활, 새 창조에 비유합니다. 에드워즈는 이것이 새 '기능'이 아니라 새 '원리'라고 정확히 구분합니다. 원리는 같은 지성과 의지가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는 본성 속의 바탕을 말합니다. 반대로 자연인에게 성령이 일하실 때에는 이미 있는 본성의 원리를 자극하고 도우실 뿐입니다. 발람이 환상을 볼 때 성령은 그의 시각을 자극하셨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기술을, 칠십 장로와 사울에게는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1. 중생은 마음에 새 감각을 만든다
2. 꿀을 보는 것과 맛보는 것의 차이와 같다
3. 새 기능이 아니라 새 원리가 생긴다
4. 자연인에게는 본성을 돕고 자극하실 뿐이다
5. 재능·용기·양심의 각성은 새 원리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2:14

자연인은 꿀맛 모르는 사람처럼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한다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민수기 24:16~17

발람은 환상을 보았어도 새 감각을 받은 것은 아니다

> 16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17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출애굽기 31:2~6

브살렐의 기술은 성령이 본성을 도우신 예

> 2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3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5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6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상 10:6, 9~10

사울이 '새 마음(다른 마음)'을 받은 것도 본성의 고양

사무엘상 10:6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10:9-10 9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 7. 두 가지 단서: 공통점도 있고, 자연인도 '새로운' 체험은 한다

오해를 막으려고 에드워즈는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째, 영적 감정의 모든 것이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상대를 기쁘게 하고 영예롭게 하고 싶어 하며, 함께 있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감각'은 종류가 다릅니다. 같은 과일을 두 사람이 좋아해도 한 사람은 색과 맛을 다 알고 다른 사람은 색만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성도에게도 이 영적 미각은 처음에 아주 작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인도 매우 새롭고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성이 낯설게 자극되고 관념이 새로 조합된 결과이고, 사탄의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오두막에서만 살던 가난한 사람이 장난으로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혀졌다고 해 봅시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생전 처음이겠지만, 그에게 새 감각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에드워즈가 이 점을 길게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세대에 사탄의 속임수가 많은 사람을 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1. 영적 사랑과 자연적 사랑은 겉모습이 닮았다

3. 성도의 영적 미각도 처음엔 작을 수 있다
4. '처음 겪는 체험'이 곧 영적인 것은 아니다
5. 거지 왕의 감정처럼 본성의 자극일 수 있다

> **고린도전서 2:14**
> 자연인은 영적 감정의 '진수'를 알 수 없다는 전제
>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 **고린도후서 11:14**
> 사탄이 새롭고 놀라운 체험으로 속인다는 경계(셰퍼드 각주가 인용)
>
>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 8. 적용 ①: 상상 속 인상은 영적이지 않다

상상력은 실제로 눈앞에 없는 것을 보고 듣는 것처럼 마음에 그려 내는 능력입니다. 그 그림이 실제처럼 생생하게 박힐 때 이것을 '상상력에 의한 인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상을 영적 발견이라고 여깁니다. 눈을 감으니 아름다운 얼굴이 보였다, 큰 빛이 보였다, 피 흘리는 십자가가 보였다, 팔 벌린 그리스도가 보였다, 열린 하늘과 보좌가 보였다, 미소 짓는 얼굴이 보였다, 마음속에 편안한 음성이 들렸다는 식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성경이 영적인 일을 '빛', '보다', '듣다' 같은 비유로 말하는데, 단순한 사람들이 그 비유를 문자 그대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념은 짐승도 가진 오감과 같은 종류입니다. 십자가 곁에서 실제로 피 흘리는 예수를 본 유대인 대적자들의 관념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시내산의 영광을 본 악한 회중, 심판 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버림받은 자들, 성상을 보고 우는 무지한 사람들의 관념보다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환상이라 해도 발람의 '야곱에게서 나올 별'처럼 일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사탄도 거짓 선지자의 꿈이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처럼 이런 관념을 일으켜

맥박이 빨라지는 것처럼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고, 감정이 상상 위에 서 있다면 그 감정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1. 상상 속 형상·빛·음성은 오감과 같은 종류다
2. 십자가를 실제로 본 대적자보다 나을 게 없다
3. 하나님이 주신 환상도 일반 역사일 수 있다
4. 사탄도 이런 관념을 일으킬 수 있다
5. 은혜에 따라올 수는 있지만 은혜의 일부는 아니다

> **민수기 24:16~17**
> 발람은 그리스도의 별을 보았으나 거듭나지 못했다
>
> 16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17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 **신명기 13:1**
> 거짓 선지자도 꿈과 이적을 보인다
>
>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 **열왕기상 22:22**
>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갔다
>
>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 **이사야 28:7**
> 환상을 그릇 푸는 선지자들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에스겔 13:7

허탄한 묵시를 본 거짓 선지자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스가랴 13:4

거짓 선지자는 자기 묵시를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 9. 적용 ②: 성경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도 그 자체로는 영적이지 않다

성경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도 결국 글자나 소리라는 외적 관념이 떠오르는 일입니다. 자연인도 겪을 수 있고, 피조물의 능력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쓰셔서 은혜로운 감정을 일으키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감정은 말씀에 담긴 영광스러운 내용을 맛보는 데서 나오지, 말씀이 떠오른 방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에드워즈가 드는 예는 이렇습니다. 각성과 공포 끝에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하늘이 직접 말씀했다고 여겨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오직 '내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익을 확신하고, 그래서 감동하고, 그다음에야 그 내용이 탁월하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에서 나온 감동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믿기 전에 사랑과 약속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만 약속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게 약속을 먼저 주는 영은 속이는 영입니다. 성경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용서받는다고 말하지, '아무개'가 용서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청의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셨다는 사실과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뿐입니다. 성령이 약속을 영적으로 적용하신다는 것은 그 약속에

1. 떠오른 구절은 글자·소리의 외적 관념이다
2. 감동의 근거가 '떠오른 방식'이면 모래 위다
3. 믿기 전에 약속을 계시하는 영은 속이는 영이다
4. 성경은 '아무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약속한다
5. 참된 적용은 약속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2:32

갑자기 떠오른 약속을 '내 몫'으로 오해하는 대표 예

>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민수기 22:38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도 영적 지식은 없었다

>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갈라디아서 3:14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순서

>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14

참된 적용은 말씀의 영적 내용을 분별하게 하는 것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지 거짓의 영이 아니시다.”

📜 10. 적용 ③: 숨은 사실을 직접 알려 주는 계시도 영적이지 않다

'비밀스러운 사실'은 감각이나 추론으로는 알 수 없고 마음에 직접 떠오르게 하는 방식으로만 알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내년에 프랑스 함대가 침공한다, 아무개가 회심한다, 오늘 어느 왕이 회심했다 같은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쪽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찾던 나귀를 찾았다는 현재의 일과, 길에서 세 사람을 만날 미래의 일을 함께 알려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앗수르 왕이 침실에서 한 말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런 지식 자체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악인도 심판 날의 일을 알게 될 것이고, 무지개라는 관념처럼 거듭나지 않은 마음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발람, 아비멜렉, 라반도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이 함께 떠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것들을 합친다고 영적인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은혜로운 감정의 우연한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실수나 속임수조차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본래 토대는 될 수 없습니다.

1. 숨은 사실을 아는 것 자체는 거룩하지 않다
2. 과거·현재·미래의 계시는 본질이 같다
3. 발람·아비멜렉·라반도 계시를 받았다
4. 영적이지 않은 것을 합쳐도 영적이 안 된다
5. 계기는 될 수 있어도 토대는 아니다

> **사무엘상 10:2~3**
> 현재와 미래의 일을 알려 준 것이 같은 종류의 계시라는 예
>
> 2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3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오려고 벧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창세기 31:24

라반도 야곱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시편 105:15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알리신 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3:2

모든 비밀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 11. 성령의 증거 = 성령의 인: 음성이 아니라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

많은 사람이 '성령의 증거'를 “너는 내 자녀다”, “네 죄가 사해졌다”는 속삭임이나 직접 떠오르는 생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앞에서 본 대로 자연인도 겪을 수 있는 일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증거가 지옥의 자식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은 성령의 증거를 천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증거를 '인 치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왕의 도장은 왕권을 가장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성경에서 '증거'라는 말은 입으로 주장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 예수의 일, 물과 피처럼 '근거를 보여 준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또 성경은 인을 '보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보증은 장차 받을 기업을 미리 일부 받는 계약금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계약금은 은혜 자체, 곧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기업의 총체는 성령 자신이십니다. 천국에서 충만히 누릴 그 성령을 지금 작게 미리 받은 것이 '보증'이고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사탄은 비밀스러운 음성을 천 배는 더 쉽게 흉내 낼 수 있지만, 이 형상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1. 성령의 증거는 속삭임이나 직통 계시가 아니다
2. 인은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3. 성경의 '증거'는 근거를 보여 준다는 뜻이다
4. 보증은 영광의 계약금, 곧 은혜 자체다
5. 사탄은 음성은 흉내 내도 형상은 못 낸다

> **고린도후서 1:22**
> 인 치심과 보증이 같은 일임을 보여 준다
>
>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 **에베소서 1:13~14**
> 약속의 성령이 인이자 기업의 보증이다
>
>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 **에베소서 4:30**
> 성도는 성령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 치심을 받았다
>
>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2:4

표적도 '증거'로 불린다. 증거는 근거를 보여 주는 것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36

예수의 일이 그를 증거한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7:3; 에스겔 9:4

하나님의 인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표

요한계시록 7: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에스겔 9: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로마서 8:23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은혜의 원리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 12. 로마서 8장 16절 바로 읽기: 증거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사랑

바울의 뜻은 로마서 8장 14~16절을 함께 읽으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증거'는 성령이 아들의 영, 곧 사랑의 영으로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께 자녀처럼 다가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앞 13절에서도 성령은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은혜의 원리로 나옵니다. 요한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강하고 생생한 복음적 사랑은 표지를 길게 따져 볼 필요 없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바로 보고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표지 없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 가장 큰 표지인 사랑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양심입니다. 이것은 서로 독립된 두 증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사랑을 심으시고, 양심이 그것을 기쁘게 알아보고 선언합니다. 에드워즈는 이 대목에 긴 지면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 잘못된 개념 때문에 높이 고조되었지만 거짓된 감정이 많이 생겼고, 수많은 영혼이 영원히 멸망했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1. 14~16절을 함께 읽어야 뜻이 보인다
2. 증거는 종의 영이 아닌 자녀의 사랑이다
3.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4. 사랑이라는 가장 큰 표지로 확신한다
5. 성령이 심고 양심이 알아보는 한 증거다

> **로마서 8:14~16**
> 성령의 증거는 양자의 영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
>
>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 **로마서 8:13**
> 성령은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은혜의 원리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요한일서 4:18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잠언 20:27

사람의 영(양심)은 깊은 속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고린도후서 1:12

'우리 양심의 증거'라는 표현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요한일서 3:19~21

마음(양심)이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0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한일서 4:13

성령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함을 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마음이 어떤 대상에 강하게 끌리거나 싫어하는 의지의 활발한 움직임입니다. 순간의 기분과는 다릅니다.

영적(spiritual)
'정신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그 본성을 나누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초자연적
본성을 키우거나 조합해서는 만들 수 없고, 종류부터 다른 하나님의 직접적인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이 성도 안에 성전처럼 영구히 머무르시며 새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반 역사 / 특별 역사
일반 역사는 자연인의 재능·양심·상상을 돕는 일이고, 특별 역사는 성도에게 자기 거룩한 본성을 나누어 주는 구원의 일입니다.

새 감각(영적 감각)
하나님의 일이 지닌 거룩한 아름다움을 '맛보는' 마음의 지각입니다. 꿀을 보는 것과 맛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본성의 원리
새 기능이 아니라, 같은 지성과 의지가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마음속 바탕(습성)입니다.

자연인(육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본성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없는 모양·빛·소리가 마음에 실제처럼 생생하게 박힌 것입니다.

성령의 인·보증

인은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보증은 장차 받을 영광을 미리 일부 받는 계약금입니다. 둘 다 은혜 자체를 가리킵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3부의 표지는 남을 판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를 분별하는 도구입니다. 약한 성도에게 확신은 성찰보다 순종으로 옵니다.
- 참된 감정의 첫 표지는 그 출처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거룩한 본성 전달이라는 점입니다.
- 그래서 참된 감정은 자연인의 어떤 체험과도 정도가 아니라 종류가 다르고, 마음에 새 감각이 생깁니다.
- 환상, 떠오른 구절, 비밀 계시는 자연인도 겪고 사탄도 흉내 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증거가 아닙니다.
- 성령의 증거는 속삭임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 곧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사랑입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11편 · 새로운 감각이 생긴다 · 표지 1 성령의 내주 (상) (준비 중)
- 신앙감정론 12편 · 영적 감각과 가짜 체험 · 표지 1 성령의 내주 (하) (준비 중)

개역개정입니다.